

표준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첨단기업은 물론 효율적인 국가 발전의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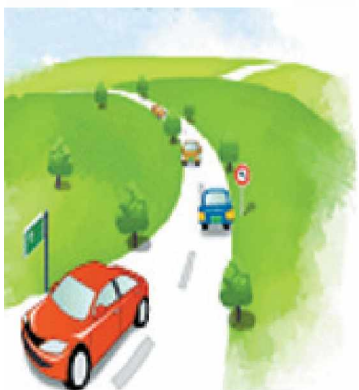
평택대학교 총장  
조기홍

# 미래를 향한 도전

**多事多難** 丁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온 세상에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세기가 국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도시와 기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와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도시단위의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 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첨단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최근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국가가 선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기관의 기능이 동시화되어 효율성이 극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국가를 움직이는 다양한 기관들이 각기 다른 변화의 속도로 가속도로 돌리고 있어 속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발전의 지해요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속도의 충동을 설명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에서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와 그 옆에 시속 50마일, 10마일, 1마일로 달리는 느림보 자동차가 섞여 달리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는 100마일 속도로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이며, 10마일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는 교육기관이며 1마일 느림보 자동차는 법과 제도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기술발전이란 엑셀레이터를 밟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첨단기술에 기반한 첨단 기업은 그동안 산업화에 늦어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에게 선진경제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차원에서 거국적으로 추진해온 GIS(Geography Information System)사업과 e-Korea 사업은 어느 정도 정착화 되어 정보강국으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신조어가 화두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또 한번의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달리는 기업이라는 자동차와 시속 10마일의 교육기관, 그리고 시속 1마일로 달리는 법과 제도라는 자동차가 같이 달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기술발전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데 사회의 주요제도들이 한참 뒤로 처진다면 국가의 경제 발전은 효율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1세기의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기업이 시속 100마일 이상의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와 사회는 기업이 첨단 기술에 기반한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표준화관련 제도개선이 시속 1마일로 달린다면 정보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 밝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표준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첨단기업은 물론 효율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발전은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이를 지원하는 교육기관의 역할도 막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마일 속도로 변화하는 대학이 속도를 높이지 않고서 어떻게 100마일 속도로 변화하는 첨단기업에서 필요



한 인력을 육성할 수 있겠습니까?

평택대학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피어선박사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912년에 서울 신문로에 설립되어 올해로 창학 94주년이 되고, 평택으로 이전한지 25주년이 되는 젊음과 사랑이 함께하는 대학교입니다.

본 대학에서는 급속한 시대적인 변화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식과 틀에 박혀 있는 학습의 장이 아닌 학생들의 능력을 무한히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지도자를 배출한다는 목표하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대학교는 국제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국의 주한대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및 교환교수 초청 및 파견, 주한미군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 해외 어학연수, 해외 인턴쉽 파견 등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 세기는 도시와 기업간 속도의 경쟁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丁亥년에는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기관들이 변화와 혁신 그리고 긴밀한 협조를 이룩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미래를 향해 크게 약진하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